

글로벌 주식시장 변화와 전망

2023.2.2

미 증시, 파월의 발언에 환호하며 상승 반전

김석환 seokhwan.kim@miraeasset.com

미 증시 동향

- 성공적인 1월 보낸 이후, 2월 첫 거래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과 제조 지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장 초반 증시 하락을 주도했으나 FOMC결과 및 파월의장의 기자회견에 시장은 환호하며 상승 반전. 노동부가 발표한 12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줘. 미국공급관리협회(ISM)이 발표한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개월 연속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기준선 50을 하회한 47.4로 발표. 올해 첫 FOMC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과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장은 오히려 상승 마감(다우 +0.02%, 나스닥 +2.00%, S&P500 +1.05%, 러셀2000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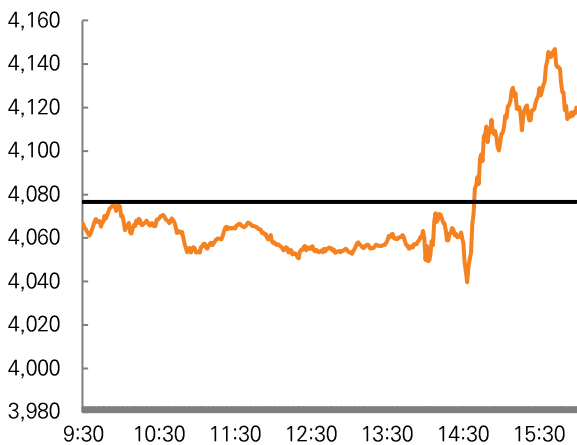
특이 종목

-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단계. 올해 첫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파월의장의 발언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 하락 베팅에 대한 의지를 더욱 키우게 만들어. 이는 위험자산(Risk On)에 대한 선호를 더욱 강화시키며 AMD(+12.6%), 엔비디아(+7.2%) 등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의 초강세 이어져.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5% 넘게 폭등

한국 증시 전망

- MSCI 한국 지수 ETF는 +2.6%, MSCI 신흥 지수 ETF는 +1.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221.1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 상승. KOSPI는 0.7%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 미국 증시가 경기민감주 및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한만큼 국내 증시도 전기전자 및 반도체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할 것으로 보여.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5% 넘게 급등한 점과 1월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재개와 정부의 반도체 육성 의지는センチ먼트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 또한 1월 자동차 판매량을 공개한 자동차 역시 내수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및 수출데이터가 잘 나온 점은 주가 펀더멘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Global Indices

지수등락률	Close	D-1(%)	지수등락률	Close	D-1(%)
KOSPI	2,449.80	+1.02	상해종합	3,284.92	+0.90
KOSDAQ	750.96	+1.41	홍콩항셱	22,072.18	+1.05
DOW	34,092.96	+0.02	베트남	1,075.97	-3.17
NASDAQ	11,816.32	+2.00	유로스톡스 50	4,171.44	+0.19
S&P 500	4,119.21	+1.05	영국	7,761.11	-0.14
캐나다	20,751.05	-0.08	독일	15,180.74	+0.35
일본	27,346.88	+0.07	프랑스	7,077.11	-0.0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변화 요인

① 고용 ② ISM제조업지수 ③ FOMC

성공적인 1월 보낸 이후, 2월 첫 거래일에 발표된 미국의 고용과 제조 지표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며 장 초반 증시 하락을 주도. 우선 1월 ADP 민간고용은 10.6만명 증가하며 전월 23.5만명과 예상 19만명을 크게 하회. ADP는 민간고용이 부진하게 나온 이유는 겨울철 홍수, 폭풍 등 날씨 영향이 크다고 밝히며 고용 감소 의미를 크게 상쇄

노동부가 발표한 12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는 경기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는 걸 보여줘, 12월 계절 조정된 일자리 수는 1100만개로 지난 해 여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 이는 전월 1040만개 및 1025만개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서 연준의 긴축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 키워. 특히 연준이 노동시장의 수급지표로 보는 실직자 1인당 일자리 수는 지난 달 1.74개에서 1.92개로 크게 확대. 이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부담스럽게 해석될 수 있는 데, 우선 기업 입장에서 인력관리 및 비용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과 소비자(근로자)의 소비위축 우려가 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 하방 경직성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연준이 집중해서 보고 있는 서비스인플레이션의 향후 둔화 폭이 축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미국공급관리협회(ISM)이 발표한 1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3개월 연속 위축된 모습을 보이며 기준선 50을 하회한 47.4로 발표하며 2020년 5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특히 전월 48.4와 예상 48.0을 모두 하회하며 향후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키워. 세부적으로는 신규주문이 향후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전월대비 2.6포인트 하락한 42.5를 기록하며 5개월 연속 위축된 모습을 보였고 수요감소와 원자재 공급 개선으로 인해 공장에서 완성되지 않은 작업(backlog)은 감소. 물가지수는 전월대비 5.1포인트 상승한 44.5를 기록. 특히 수요 압박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고용하고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고용지수는 50.6으로 지난 달 50.8에서 소폭 하락

시장의 이목이 집중된 올해 첫 FOMC 회의에서 미 연준은 만장일치(투표위원 12명)로 기준금리를 25bp 인상(4.50~4.75%) 하기로 결정하며 ‘통상적인’ 긴축 속도로 회귀. 특히 성명서에는 최근 경제지표에서 완만한 지출과 생산의 성장을 언급한 가운데 고용은 여전히 견고하다고 밝혀. 여기에 인플레이션은 다소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중이라고 발표. 이는 시장이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라는 점에서 금융 시장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일부 내용이 덜 매파적인 것으로 인식. 성명서 발표 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파월의장은 금융여건 완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연준이 단기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 광범위한 금융 여건에 대한 지속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하자 증시는 빠르게 상승 반전하며 상승폭 확대. 동시에 미 국채수익률과 달러화는 약세로 전환되며 낙폭을 더욱 확대

그러나 파월의장은 “승리를 선언하거나 우리가 정말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매우 시기상조”라면서 “계약적 정책 달성 위해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고 밝혀. 특히 그는 “올해 금리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점과 “적절한 계약적 스텔스를 위해 2~3차례 정도의 추가 금리인상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혀. 향후 시장은 연준의 추가 긴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완화된 상태에서 기업이익과 소비 등 실물경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



Risk-On 확산에 성장·경기민감주 강세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단계. 올해 첫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 나선 파월의 발언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인플레이션 하락 베팅에 대한 의지를 더욱 키우게 만들어. 이는 위험자산(Risk On)에 대한 선호를 더욱 강화시키며 AMD(+12.6%), 엔비디아(+7.2%) 등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업종의 초강세 이어져. 이 영향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SOX)는 5% 넘게 폭등. 전일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AMD는 4분기 호실적과 1분기 매출이 10% 정도 둔화할 수 있다고 밝혀. 그러나 부진한 PC사업부문을 데이터센터 부문 호조로 상쇄시킬 수 있다는 발언에 강세. 개인용 피트니스 장비업체인 펠로톤(PTON)은 손실축소와 구독 매출 증가 영향으로 26% 넘게 급등. 글로벌 운송 업체 페덱스(FDX)는 지난 7개월 동안 진행한 정리해고에 이어 추가 감원 계획을 밝히며 올해 총 37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4% 넘게 상승

다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스냅(SNAP)은 사용자에게 광고를 맞춤형하는 기능을 제한하는 애플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변경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올 1분기 매출이 최대 10%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10% 넘게 급락.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신용카드 연체료 인하 강제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브리드파이낸셜홀딩스(-7.2%), 싱크로니파이낸셜(-3.9%) 등 자체 브랜드의 카드를 발행하는 은행주 위주로 하락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XOP)	-2.32	대형 가치주 ETF (IVE)	+0.98
클린테크 ETF (CTEC)	+2.57	중형 가치주 ETF (IWS)	+0.93
소매업체 ETF (XLY)	+1.90	소형 가치주 ETF (IWN)	+1.19
온라인소매 ETF (EBIZ)	+3.56	대형 성장주 ETF (VUG)	+1.93
미국 인프라 ETF (PAVE)	+1.45	중형 성장주 ETF (IWP)	+2.01
핀테크 ETF (FINX)	+2.97	소형 성장주 ETF (IWO)	+1.74
소셜미디어 업체 ETF (SOCL)	+2.54	퀄리티 배당주 ETF (QDIV)	+0.26
클라우드 ETF (CLOU)	+3.29	신흥국 고배당 ETF (SDEM)	+0.53
사이버보안 ETF (BUG)	+5.05	신흥국 저변동 ETF (EEMV)	+1.13
전기차&자율주행 ETF (DRIV)	+2.65	미국 국채 ETF (IEF)	+0.72
글로벌 2차전지 ETF (LIT)	+2.29	하이일드 ETF (JNK)	+0.93
바이오섹터 ETF (IBB)	+0.12	신흥국 채권 ETF (EMBD)	+1.52
로봇&AI ETF (BOTZ)	+3.28	물가연동채 ETF (TIP)	+0.67
반도체 ETF (SMH)	+4.72	미 투자등급회사채 ETF (LQD)	+1.02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IT	2,427.67	+2.29	+3.85	+11.76
경기소비재	1,178.10	+1.89	+6.82	+17.17
커뮤니케이션	184.49	+1.34	+3.44	+15.76
필수소비재	776.77	+0.76	+1.38	-0.30
부동산	257.12	+0.73	+3.43	+10.65
산업재	868.10	+0.71	+2.37	+4.41
소재	536.88	+0.65	+2.32	+9.67
헬스케어	1,560.94	+0.48	+0.30	-1.55
유틸리티	351.81	+0.18	+0.80	-1.86
금융	608.01	+0.02	+1.38	+6.72
에너지	677.53	-1.89	-2.06	+0.77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한국
주식시장 전망

안정적 환율 속 외국인 수급 유입 기대

MSCI 한국 지수 ETF는 +2.6%, MSCI 신흥 지수 ETF는 +1.2%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개월 물은 1221.15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1원 하락 출발 예상. Eurex KOSPI200 선물은 0.4% 상승. KOSPI는 0.7% 내외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

올해 첫 열린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 국면”이라고 언급하면서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 둔화 움직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 또한 긴축속도를 통상적인 수준인 25bp로 둔화시키며 시장의 기대에 부응. 다만 발언 중 “인플레이션 승리 선언은 이르다”면서 “제한적인 정책 기조 유지를 위해 2~3차례의 금리인상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는 발언이후 상승폭을 더욱 확대하며 상승 마감. 동시에 미 달러가치는 전일대비 1% 가까이 하락하며 외국인의 위험자산 선호가 더욱 커질 수 있음을 시사. 특히 달러/원 환율은 역외에서 11원 넘게 하락한 1221원을 기록하며 지난 해 4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미국 증시가 경기민감주 및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한만큼 국내 증시도 전기전자 및 반도체 중심의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할 것으로 보여.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5% 넘게 급등한 점과 1월 반도체 수출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 재개와 정부의 반도체 육성 의지는センチ멘트에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 여기에 삼성전자는 <갤럭시 언팩 2023> 행사를 갖고 기존 모델보다 카메라 성능이 향상된 플래그십 모델 공개하며 오는 17일부터 본격 판매할 예정

또한 1월 자동차 판매량을 공개한 자동차 역시 내수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해외 및 수출데이터가 잘 나온 점은 주가 펀더멘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미 국채수익률, 달러 가치 급락

미 국채수익률과 달러가치는 FOMC 통화정책 결정 이후 하락폭을 확대. 미 국채 2년물과 10년물은 각각 전일대비 11bp씩 하락하며 4.1%, 3.4%를 기록. 특히 2년물은 연중 저점 부근까지 하락하며 인플레이션 둔화에 따른 중앙은행의 조기 기조 변화에 대한 시장 기대심리가 높게 형성되고 있음을 반영. 미 국채 장단기금리차는 10년-3개월물 -125bp, 10년-2년물 -69bp를 기록

달러인덱스는 미 연준 및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영향으로 장중 낙폭을 더욱 확대하며 전일 대비 0.9% 하락한 101.17 기록. 달러 약세 영향으로 국제 금가격은 1% 넘게 상승하며 온스당 1970달러 선에 근접. 이는 2022년 4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지난 11월 저점 이후 21% 넘게 상승

국제유가는 미 제조업 경기 부진 우려와 원유 재고가 6주 연속 증가했다는 소식에 3%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며 1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1월 ISM제조업지수가 기준선 50을 하회한 47.4로 발표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에너지정보청(EIA)는 1월 말 주간 원유 재고는 전주대비 414만 배럴 증가한 4억 5269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발표. 이외 OPEC+ 산유국들의 장관급 감시위원회(JMMC) 회의가 열렸지만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 미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7% 넘게 하락하며 백만열량단위당(MMBtu) 2.48달러 기록하며 2021년 4월 이후 최저 기록

미국 냉동 농축 오렌지주스의 선물 가격이 4% 넘게 상승한 파운드당 약 2.29달러 기록하며 201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이는 주요 작황지인 선사인주 지역과 두 차례의 허리케인 및 감귤류 질병으로 인해 올해 오렌지 예상 수확량이 작년대비 절반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주요 상품	종가	D-1(%)	D-5(%)	주요 통화	종가	D-1(%)	D-5(%)
WTI	76.41	-2.52	-4.08	Dollar Index	101.173	-0.91	-0.46
브렌트유	82.84	-2.61	-3.43	EUR/USD	1.0984	+1.11	+0.62
천연가스	2.47	-6.67	-18.32	USD/JPY	129.02	-0.82	-0.44
금	1,942.80	+1.15	+0.42	GBP/USD	1.2371	+0.41	-0.26
은	23.61	+1.09	+0.64	USD/CHF	0.9092	-0.76	-0.96
알루미늄	2,631.50	-0.47	-1.02	AUD/USD	0.7131	+1.08	+0.38
전기동	9,087.00	-1.47	-2.44	USD/CAD	1.3292	-0.11	-0.75
아연	3,349.50	-1.17	-2.91	USD/RUB	69.7531	-0.62	+0.69
옥수수	681.00	+0.18	+0.93	USD/BRL	5.0520	-0.47	-0.49
밀	759.75	-0.43	+2.26	USD/CNH	6.7206	-0.54	-0.76
대두	1,520.25	-1.15	+1.18	USD/KRW	1,231.30	-0.05	-0.03
커피	175.90	-3.22	+8.28	USD/KRW NDF1M	1,221.15	-0.92	-0.89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종가(%)	D-1(bp)	D-5(bp)
미국	3.417	-9.03	-2.50	스페인	3.281	-0.10	+17.00
한국	3.242	-3.80	+2.20	포르투갈	3.195	+0.50	+16.90
일본	0.492	-0.40	+4.60	그리스	4.305	+0.20	+7.90
독일	2.284	-0.20	+12.60	이탈리아	4.297	+14.20	+34.80

자료: 블룸버그,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리서치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미래에셋증권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